무너진 민주주의, 언론 부역자가 공범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언론공범 청산하자>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꼭 밝혀야 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0대 의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치권력에 부역한 언론부역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언론장악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언론'들은 '권력 감시'와 '진실 추구'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공정보도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권력감시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농락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이들을 '언론부역자'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치권력에 부역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언론부역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웁시다.

이인호

KBS 사장 고대영 선임시 청와대와 통화. "광복은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에 이뤄졌다"고 주장. 대통령 자문 원로 그룹 인사 중 한 명으로 국사 교과서 국정화 입장을 폈다.

고대영

KBS 사장,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에 이어 KBS를 '청와대 확성기'로 만든 자. 청와대로부터 낙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KBS 사드 보도 지침, 내부 비판을 한 기자를 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공정언론을 파괴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 1심에서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 인정. 공영언론 MBC가 망가지는 것을 방조했고, 최승호 PD 등을 부당하게 해고한 자들을 비호했다.

안광한

MBC 사장. 공정방송 MBC를 '정권의 확성기'로 타락시킨 자.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 해고 당시 인사위원장. 공정보도 요구하는 기자, PD들을 다른 부서로 부당인사하는 등 공정보도시스템을 붕괴시켜켰다.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2009년 연합뉴스 편집국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축소 보도, 4대강 찬양 보도 등 불공정 보도를 주도. 사장이 된 후 보복 인사 자행. 연합뉴스의 불공정 보도를 주도하고 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협회장. 'YTN노조를 제압'하고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YTN 사장으로 발탁됐다. 노종면 등 해직자 복직을 가로 막는 등 공정방송을 훼손한 대표적인 인사.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언론포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선정 10대 의제

1.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2. 외교 사안에서 대통령은 어디까지 최순실에 의존했는가?

3. 예측할 수 없고 돌발적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최순실의 영향인가?

4. 재벌과 대기업들은 최순실과의 거래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5. 최순실, 차은택이 사유화하고 검열한 문화 행정 · 사업의 끝은 어디인가?

6.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의 배경은 무엇인가?

7. 대통령은 최순실의 청와대 및 공직 인사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했는가?

8. 공영방송은 최순실 인사 전횡에서 자유로웠는가?

9. 최순실과의 관계에 침묵하는 자 누구인가?

10. 산적한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unsiri.tistory.com에 올려져 있습니다.